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을 활용한 공격성 수준별 유형의 학교적응과 심리적 특성 탐색*

최지영 문경숙 안해정 홍경화 김진구 최은영 박종효
한남대학교 원광대학교 한국교육개발원 헛볼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건국대학교

Differences in Self-reported and Peer nominated Aggression Groups in Schoo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Jiyoung Choi Kyoung-Suk Moon Hai-Jeong Ahn Kyungwha Hong Jingu Kim Eunyoung Choi Jonghyo Park**
Hannam University Wonkwang University KEDI Torch Trinity Graduate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ARTICLE INFO ABSTRACT

Article history:
Received Aug 16 2018
Revised Sep 25 2018
Accepted Sep 28 2018

Keywords:
Self Report,
Peer Nomination,
School Adjustment,
Aggressive Behaviors,
Aggression

주제어:
자기보고,
또래지명,
학교적응,
공격행동,
공격성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pare the distribution of aggressiveness level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o explore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positive psychology, and negative psychology based on aggressiveness level groups. For this research purpose,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First, what is the distribution of aggressiveness level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cond,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school adjustment, positive psychology, and negative psychology among school levels? Third, are there any interaction effects of aggressiveness level and school levels on school adjustment, positive psychology, and negative psychology? In this research study, data of 3179 participants was derived from 2017 ClassNet program data b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eer-nominated aggressive group and high aggressive group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high school compared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econd, self-reported aggressive students perceived themselves negatively and had difficulties in school adjustment compared to non-aggressive students or peer-nomination aggressive students. Lastly, the results of the interaction analysis between aggressiveness level and school level showed an interaction effect in behavioral participation, morality, empathy, self-control, and negative emotion.

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을 토대로 초, 중, 고등학생의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를 비교하고,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긍정 및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첫째, 초, 중, 고등학생의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급별로 공격성 수준별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긍정 및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적응, 긍정 및 부정심리에 대한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이다. 2017년도에 클래스넷 프로그램에 포함된 초, 중, 고등학교 학생 3,179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지명 공격성집단과 높은 공격성집단의 비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감소하였다. 반면 자기보고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확인된 집단 비율은 중·고등학교에서 오히려 증가하였다. 둘째, 자신을 스스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비공격성집단이나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에 비해 대체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학교적응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격성 수준별 집단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분석결과, 행동적 참여, 도덕성, 공감, 자기조절, 부정정서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911)

** Corresponding author, jonghyop@konkuk.ac.kr

I. 서론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래들 간의 괴롭힘은 최근 들어 학교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학교라는 제도가 생긴 이후로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또래괴롭힘을 누구나 성장기에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또래괴롭힘은 발달과정에서 볼 수 있는 또래 간의 일반적인 갈등과는 다르고,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친구들 간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은 힘의 관계에서 불균형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와 피해의 입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특별히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면, 괴롭힘 현상은 힘의 서열이 존재하고 남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당기간 괴롭힘이 지속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Weinhold, 2000). 따라서 괴롭힘 행동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해를 끼치기 때문에(Pellegrini, Bartini, & Brook, 1999) 청소년기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행동은 주로 공격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러한 괴롭힘 상황에서 학생들의 공격적 성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심리·사회적 개입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롭힘 행동이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의 비율이 조사기관이나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이훈구, 2000).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또래들 간의 괴롭힘 행동은 주로 자기보고방법을 통해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Cornell & Brockenbrough, 2004). 국내에서 수행된 관련 연구들(박예라, 오인수, 2018; 이명신, 2003; 이선미, 유성경, 2013; 채진영, 2013)에서도 자기보고방법을 사용하여 괴롭힘 행동을 측정한 바 있다. 또한 청소년의 괴롭힘 행동이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측정방법 중 자기보고방법 이외에 또래지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또래지명은 다수의 평정자의 지명으로 개별 학생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정보를 측정하는 방식이다(Lewin & Zwany, 1976; Prinstein, 2007).

그런데 초기 청소년기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공격성에 대한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간에 상관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lemans, 2010). 즉 자기보고에 의해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표시한 학생이 또래들에 의해서 반드시 공격적인 학생으로 지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격성을 측

정하였을 때 각각의 측정방식에 의해 선별된 공격적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볼 수 있다. 가령 Clemans의 연구(2010)에서는 또래지명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학생들은 자기보고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학생들보다 흑인인 경우가 더 많았고, 이에 대해 Clemans는 공격성을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공격적 청소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자기보고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래평정 역시 사회적 편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Österman et al., 1994).

한편 또래지명은 자기평정에 비해 내적으로 더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Österman과 그의 동료연구자들의 연구(1994)에 따르면, 아동들은 또래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보다 스스로에 대해 덜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피해경험은 그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에 대해 자신과 또래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여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에 의한 공격성 점수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ADI지수(attributional discrepancy index)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누가 남을 때리는가?’와 같은 질문을 한 후, 학급 학생들 전체가 포함된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학생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또 그 학생은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를 5점 척도에 의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때 학생들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반응할 수 있다. 신체적, 언어적, 간접적 공격성 점수를 각각 더한 후, 전체점수를 전체 문항 수로 나누어 ADI지수를 산출하였다. 공격성에 대한 자신과 또래평정 간의 차이는 그들이 속한 사회의 중요한 규범과 관련 있음이 확인되었다. 만일 자기평정 공격성 점수가 또래평정 공격성 점수보다 높으면 해당 공격성 유형이 그 사회에서 수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Zimmer-Gembeck과 Pronk(2012)는 자기보고와 또래지명방법을 사용하여 9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호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학교에서의 또래관계가 그들의 우울감이나 불안과 관련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감과 불안을 더 많이 보고한 청소년들은 관계적 공격성의 피해경험에 대한 자기보고를 더 많이 하였고, 또래들을 덜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또래지명에 비해 자기보고에서 관계적 공격성과 피해경험을 더 많이 보고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공격성과 피해경험을 적게 보고한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부정적 증상을 나타냈다. 즉 자기보고에서 자신을 더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우울감이나 불안이 높았다.

이처럼 또래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되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을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는 경우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느낌과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문제행동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또래에 의해서보다 자기 자신에 의해 스스로를 공격적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심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적응이나 긍정적인 심리상태도 다른 학생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긍정성에 대한 연구들 중 공격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자아개념에 대한 한 연구 (Graham, Bellmore, & Mize, 2006)에서는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에 대한 또래지명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을 피해자그룹, 공격자그룹, 공격적 피해자그룹,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그룹(공격적이지도 않고, 피해경험도 없는 그룹)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그룹이 자신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자 그룹이 자신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존중감의 경우, 공격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낮거나 과장된 자기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사회적 수용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평가 간의 격차를 또래로부터의 거부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면서 '논쟁적 자기존중감 disputed self-esteem'이라는 용어로 개념화하기도 한다(Diamantopoulou, Rydell, & Henricsson, 2008). Österman과 동료연구자들(1994)이 밝힌 바 있듯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또래에 의해 평가되는 것보다 자기보고방법을 사용했을 때 자신을 덜 공격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다르게 특히 자신을 공격적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학생들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격행동에 대해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또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다른 학생을 때리는 행동을 하기도 한다(Snowman & Biehler, 2000). 이처럼 초등학교 시기에는 또래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체적 공격행동을 많이 한다. 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공격성향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이혜정, 위슬아, 김범준, 2015).

청소년 시기에는 아동기에 비해 인지적 능력이 향상되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사회적 비교를 통해 자신의 외모나 능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Mullis, Mullis, & Normandin, 1992). 이러한 청소년의 특징은 결국 문제행동이나 공격행동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의 공격행동에 대해 자기보고방법과 더불어 또래지명방법을 병행하여 공격행동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담임교사와 같은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또래지명연구가 적은 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같은 반 학생들의 역동이 크기 때문에 또래지명방법을 통해 사회적 관계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담임교사 평정이나 자기보고방법에 의해서만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래지명방법을 병행하여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를 파악한다면 또래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가진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상담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간에 차이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정보도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보고와 또래지명방법을 토대로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를 비교하고, 각 학교급별로 공격성 수준별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긍정심리 및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즉 공격성에 대한 자신과 또래에 의한 평가의 차이가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것이 학교적응과 전반적인 개인의 심리상태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의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학교급별로 공격성 수준별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긍정심리 및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에 대한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A. 공격성의 측정방법: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일반적으로 사회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고방법은 사용하기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Orpinas, P., & Frankowski, R., 2001). 자기보고방법은 연구참여자가 반응하기 쉽고 실시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 때문에 또래평정 측정도구를 자기보고식으로 변환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최지영, 허유성, 2008). 그런데 괴롭힘행동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방법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자기보고방법을 통해 또래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측정할 경우, 학생들의 기분이나 심리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보고방법 이외에 다양한 측정법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박예라, 오인수, 2018). 또한 자기보고방법은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래나 부모로부터 자료 수집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이선미, 유성경, 2013). 특히 자기보고검사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처음 보는 문항이라도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파악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때 연구참여자들에게 검사의 결과를 연구자이외에는 절대 알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경우가 많다.

한편 또래지명방법은 공격성이나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또래관계연구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Card et al., 2005). 또래지명방법은 한 아동에 대해 다수의 아동이 평가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보고방법에 비해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Rigby, 1996).

기존 연구 중에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자기보고방법과 또래지명방법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탐색한 연구(Graham & Juvonen, 1998)가 있고, 국내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하여 하위 집단별 분포를 살펴본 연구(신유림, 2006)가 있다. 측정방법에 따라 아동의 심리적 적응의 다른 측면을 예언해준다고 할 수 있는데, 가령 또래괴롭힘에 대한 아동의 자기보고는 주관적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우울이나 불안함, 외로움과 같은 개인내적 적응과 관련이 있고, 또래보고는 또래관계에서의 수용이나 거부와 같은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적응과 관련이 있다(Fiske & Taylor, 1991; Graham & Juvonen, 1998; Hodges & Perry, 1999; 신유림, 2006에서 재인용).

자기보고와 또래지명방법을 사용하여 피해학생들을 범주화 한 연구(신유림, 2006)에서는 또래들은 피해자로 지명하였지만 자신은 피해자로 지각하지 않은 아동들과 또래의 평가는 그렇지 않지만 스스로 자신을 피해자로 지각하는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단일 방법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의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들 중에서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피해행동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평가방법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은 어느 정도 수행되어 온 반면, 공격행동을 하거나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해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자기보고방법과 또래지명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비교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격성이나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가해행동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보고방법이나 또래지명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괴롭힘 상황에서의 피해아동의 비율이 2%에서 40%까지 차이가 난다는 연구(이훈구, 2000)결과가 있는 것처럼 괴롭힘 행동이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의 비율도 조사기관이나 조사방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가령 같은 년도의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을 조사해도 측정방식에 따라 가해률과 피해률이 차이가 난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측정방법을 비교하여 학교폭력실태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송지연, 오인수, 2015). 국내에서도 학교폭력의 가해 및 피해경험을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방식으로 측정하여 비교한 연구(송지연, 오인수, 2015)에 따르면, 자기보고방식으로 가해 및 피해경험을 측정했을 때 높게 보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B. 공격성과 학교적응, 긍정심리 및 부정심리

초, 중, 고의 공격행동 발달경향을 살펴보면, 공격성은 개인차는 있지만 상급학교로 진학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명현, 이운주, 2016).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격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연, 전종설, 2015; 박미향, 김완일, 2014;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 2014; 유지혜, 유혜승, 2018). 학교적응을 일반적으로 학습에 관한 부분, 학교규범준수에 관한 부분, 교사-학생 관계, 교우관계 등의 영역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07), 이 연구에서는 특히 학습과 관련된 학업효능감과 학교생활과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학교적응이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긍정심리는 도덕성, 공감, 자기존중, 자기조절이다. 공격행동은 도덕성 및 공감수준과 관련이 있다. 또한 자신(self)과 관련된 생각이나 느낌, 행동 등도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다. 우선 선행연구들 중에서 공격행동과 도덕성 및 공감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도덕성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문유신, 2015) 도덕성을 인지, 정서, 행동의 측면에서 연구하는 경우도 있다. 도덕적 판단력과 공격행동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손경숙, 2001)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공격행동과 언어적 공격행동을 하는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에 관계를 살펴본 연구결과(장지윤, 이경순, 장은영, 2014; 한세영, 2007)에 따르면, 수치심이 클수록, 죄책감이 적을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행동에 관한 연구(Hastings et al., 2000)에서는 도덕적 행동을 많이 할수록 공격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감이나 감정이입과 공격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그동안 연구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가령 공감능력이 뛰어나수록 공격행동을 덜 한다는 연구들도 있지만(신나민, 2012; 정여주, 두경희, 2015; Briggs et al., 1998), 공감이나 감정이입을 잘할수록 공격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도 있다(한세영, 2007). 특히 한세영의 연구(2007)에서는 감정이입을 잘할수록 정서적 영역에서 공격성을 많이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나민의 연구(2012)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공감적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여주와 두경희의 연구(2015)에서는 공감능력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상황에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이 낮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공격성의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들을 알 수 있다. 우선 김세원과 김예성의 연구(2009)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공격성의 발달체적과 예측요인을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공격성이 낮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자아통제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통제나 자기조절능력이 공격성에 대한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지영과 배라영의 연구(2014)에서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자기조절의 하위요소인 정서조절을 잘하는 것이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태산과 김자경의 연구(2015)결과에 따르

면,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 및 내면화와 관련된 문제행동을 감소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자존감은 공격성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존감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아진다(박영란, 이주리, 2011; 이승주, 남재성, 2016).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부정정서, 문제행동, 사회적 소외를 부정심리와 관련된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공격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개인의 우울이나 불안, 걱정 등과 같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을 자주 하는 것 또는 친구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경험이 공격행동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가 강할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최지영, 배라영, 2014). 공격성은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정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유라, 노충래, 2014;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Ferguson et al., 2012).

또한 또래지명을 통해 가해자 집단으로 범주화된 학생들이 행동문제와 정서불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신 외, 2001). 한편 청소년 비행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울, 자기통제력, 자기효능감, 학교애착 등이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혜민, 배성우, 2012).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2017년도에 클래스넷 프로그램에 포함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총 3,17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학교급별로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1588명, 중학생은 798명, 고등학생은 793명이다. 클래스넷 프로그램(박종효 외, 2017)은 담임교사가 자신의 학급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웹기반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에서는 클래스넷에 포함된 자료 중 공격성과 학교적응, 긍정심리 및 부정심리에 관한 학생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에 관한 변인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B.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자기보고 공격성과 또래지명 공격성 문항은 각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적응, 긍정심리 및 부정심리 문항은 모두 자기보고방식이다. 자기보고 공격성은 ‘나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위협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 a값은 .70이었다. 또래지명 공격성은 ‘이 아이는 놀리거나 욕을 한다.’ 등의 4문항에 대해 학급 학생들이 해당하는 학생을 모두 지명하도록 되어있다. 개별 학생이 학급친구들로부터 받은 지명 수는 전체 참여자수에서 1을 뺀 수로 나누어 비율점수로 환산하였다. 또래지명 공격성의 Cronbach’ a값은 .80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학업효능감(3문항), 정서적 참여(3문항), 행동적 참여(3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려운 내용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다(학업효능감), ‘나는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다(정서적 참여), ‘나는 학교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거나 멍해질 때가 있다(행동적 참여)’ 등이 있다. 학교적응의 Cronbach’ a값은 각각 .66, .82, .59로 나타났다. 긍정심리는 도덕성(2문항), 공감(3문항), 자기존중(3문항), 자기조절(3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친구를 성격이나 외모,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대한다(도덕성), ‘나는 친구가 화가 나있거나 슬퍼하고 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공감), ‘나는 나 자신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자기존중), ‘나는 짜증이 나더라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다(자기조절)’ 등이 있다. 긍정심리의 Cronbach’ a값은 .70, .85, .93, .88로 나타났다. 부정심리는 부정정서(3문항), 문제행동(3문항), 사회적 소외(2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나는 걱정이 많다(부정정서), ‘나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문제행동), ‘우리 반 아이들은 나를 좋아하거나 같이 놀고 싶어 한다(사회적 소외)’ 등이 있다. 부정심리의 Cronbach’ a값은 .76, .73, .64로 나타났다.

C.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우선 공격성에 대한 자기보고와 또래지명방법을 사용하여 높은 공격성 집단(자기보고와 또래지명에서 모두 공격성 점수가 높은 집단), 비공격성 집단(자기보고와 또래지명에서 모두 공격성 점수가 낮은 집단), 또래지명 공격성 집단(또래지명에서만 공격성 점수가 높은 집단), 자기보고 공격성 집단(자기보고에서만 공격성 점수가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공격성에 대한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점수는 Z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고, 0.5이상인 경우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Rodkin, & Ahn, 2009; Rodkin, Farmer, Pearl, & Van Acker, 2006). 공격성 점수는 일반적으로 표준분포를 보이지 않고 부적으로 편포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정규분포상에서 약 상위 30%에 해당하는 학생을 공격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공격성이 높은 집단의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들과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경향을 살펴

보았다. 또한 각 학교급별로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가 공격성 수준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에 대해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 Correlations between self-report and peer nomination by school levels

	초등	중등	고등	전체
	자기보고			
또래지명	.213**	.169**	.138**	.171**

** $p < .01$

<Table 1>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의 경우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의 상관이 초등학생($r = .213, p < .01$), 중학생($r = .169, p < .01$), 고등학생($r = .138, p < .01$) 모두 유의미한 낮은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IV. 연구 결과

A.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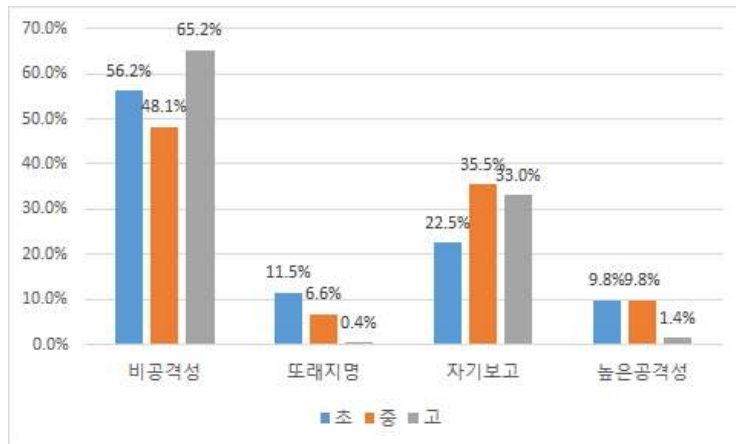
학교급별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공격성 유형의 비율이 증가하는 알 수 있다. 또래지명 공격성집단과 높은 공격성 집단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자기보고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확인된 집단의 비율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학교급별 공격성 유형 분포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Table 2> Aggression groups distribution by school levels

학교급	비공격성 집단	또래지명 공격성집단	자기보고 공격성집단	높은 공격성집단	합계	χ^2
초	892 (56.2)	183 (11.5)	357 (22.5)	156 (9.8)	1588 (100)	203.479***
중	384 (48.1)	53 (6.6)	283 (35.5)	78 (9.8)	798 (100)	
고	517 (65.2)	3 (0.4)	262 (33.0)	11 (1.4)	793 (100)	
합계	1793 (56.4)	239 (7.5)	902 (28.4)	245 (7.7)	3179 (100)	

*** $p < .001$

단위: 명(%)



(Figure 1) Aggression groups distribution graph by school levels(%)

B. 공격성 유형에 따른 학교적응, 긍정심리 및 부정심리

<표 3>는 초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학교적응과 긍정심리의 경우에는 비공격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과 타인에 의해서 공격적이지 않다고 지각된 집단이 학업효능감도 높고 정서적, 행동적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자기보고 공격성집단과 높은 공격성집단이 비공격성집단과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에 비해 부정심리점수가 높게 나타나서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3〉 One way ANOVA result of elementary students(N=1588)

구 분		비공격성		또래지명		자기보고		높은 공격성		F	Scheffe
		집단(A)		공격성집단(B)		공격성집단(C)		집단(D)			
		M	SD	M	SD	M	SD	M	SD		
학교 적응	학업효능감	3.84	0.78	3.79	0.70	3.49	0.79	3.40	0.86	26.851***	A,B>C,D
	정서적참여	4.26	0.77	4.12	0.94	3.99	0.86	3.82	0.93	18.146***	A>C,D, B>D
	행동적참여	3.67	0.82	3.38	0.93	3.15	0.83	2.85	0.80	63.525***	A>B>C>D
긍정 심리	도덕성	4.18	0.83	3.92	0.94	3.69	0.87	3.45	0.74	51.331***	A>B>C>D
	공감	4.23	0.71	4.07	0.82	3.76	0.81	3.57	0.75	56.219***	A,B>C,D
	자기존중	4.31	0.86	4.25	0.86	3.98	0.95	3.85	1.02	19.705***	A,B>C,D
부정 심리	자기조절	4.00	0.83	3.82	0.88	3.43	0.94	3.26	0.97	56.141***	A>B>C>D
	부정정서	2.26	1.08	2.27	1.08	2.86	1.01	2.87	1.03	37.824***	C,D>A,B
	문제행동	1.53	0.62	1.72	0.66	2.20	0.80	2.43	0.76	131.123***	D>C>B>A
	사회적소외	2.14	1.05	2.15	1.06	2.23	0.81	2.32	0.89	1.829	-

*** $p < .001$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Games-Howell로 사후검증을 실시함

<표 4>은 중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중학생의 결과는 초등학생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학교적응과 긍정심리의 경우에는 비공격성집단과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자기보고 공격성집단과 높은 공격성집단이 비공격성집단과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에 비해 부정심리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4〉 One way ANOVA result of middle school students(N=798)

구 분		비공격성		또래지명		자기보고		높은 공격성		F	Scheffe
		집단(A)		공격성집단(B)		공격성집단(C)		집단(D)			
		M	SD	M	SD	M	SD	M	SD		
학교 적응	학업효능감	3.65	0.78	3.73	0.73	3.42	0.63	3.47	0.72	6.822***	A, B>C
	정서적참여	4.08	0.77	4.11	0.87	3.73	0.76	3.86	0.85	11.838***	A, B>C
	행동적참여	3.37	0.78	3.25	1.01	3.00	0.70	2.79	0.71	20.135***	A>C,D, B>D
긍정 심리	도덕성	4.16	0.75	3.99	0.85	3.76	0.67	3.64	0.79	21.971***	A>C,D
	공감	4.13	0.69	3.99	0.84	3.72	0.65	3.75	0.65	21.894***	A>C,D
	자기존중	4.11	0.91	4.23	0.89	3.84	0.85	4.06	0.84	5.981***	A, B>C
부정 심리	자기조절	4.00	0.82	3.97	0.91	3.49	0.73	3.62	0.88	23.431***	A,B>C, A>D
	부정정서	2.38	1.00	2.01	0.95	2.72	0.83	2.61	0.86	12.604***	C,D>A, D>B
	문제행동	1.69	0.63	1.60	0.65	2.32	0.72	2.44	0.78	64.527***	C,D>A,B
	사회적소외	2.08	0.91	2.21	1.22	2.25	0.73	2.17	0.94	2.005	-

*** $p < .001$

<표 5>는 고등학생의 공격성 유형에 따라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적응과 긍정심리에서 비공격성집단이 자기보고 공격성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심리에서는 자기보고 공격성집단이 비공격성 집단에 비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5> One way ANOVA result of high school students(N=793)

구 분		비공격성 집단(A)		또래지명 공격성집단(B)		자기보고 공격성 집단(C)		높은 공격성 집단(D)		F	Scheffe
		M	SD	M	SD	M	SD	M	SD		
		학교 적응	학업효능감	3.49	0.69	3.22	0.84	3.29	0.59		
	정서적참여	3.83	0.77	3.44	1.39	3.59	0.81	3.64	0.69	5.603**	A>C
	행동적참여	3.34	0.76	3.33	0.58	3.08	0.60	2.61	0.66	10.993***	A>C,D
긍정 심리	도덕성	4.22	0.69	3.83	0.76	3.82	0.74	3.86	0.78	19.299***	A>C
	공감	4.24	0.63	3.67	1.33	3.86	0.69	3.73	0.76	20.981***	A>C
	자기존중	3.95	0.87	4.44	0.51	3.76	0.84	4.03	0.80	3.386***	A>C
	자기조절	3.86	0.84	4.33	1.15	3.43	0.77	3.45	0.85	17.485***	A>C
부정 심리	부정정서	2.54	1.01	2.00	0.88	2.84	0.80	2.70	0.80	6.500***	C>A
	문제행동	1.66	0.59	1.89	0.77	2.27	0.69	2.12	0.60	56.936***	C>A
	사회적소외	2.09	0.85	2.00	1.00	2.20	0.69	2.23	1.01	1.123	-

** $p < .01$, *** $p < .001$

C.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 수준을 살펴본 결과, 행동적 참여, 도덕성, 공감, 자기조절, 부정정서에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난 변인을 중심으로 결과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이 각각 행동적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수인 행동적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비공격성 집단의 행동적 참여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고등학교는 또래지명 공격성집단과 비공격성집단의 행동적 참여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높은 공격성 집단의 행동적 참여는 급격하게 낮아졌다.

도덕성의 경우는 공격성 수준별 유형이 도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공격성 수준별 유형 집단 간에 도덕성 점수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자신과 또래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높은 공격성집단이 도덕성 점수가 가장 낮았다. 반면 중, 고등학생은 자기보고 공격성집단의 도덕성 점수가 가장

낮았고, 비공격성 집단과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의 도덕성 점수가 가장 높았다.

〈Table 6〉 Two ANOVA result of aggression groups and school levels on behavioral participation, morality, empathy, self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s

공격성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행동적 참여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격성유형	110.876	3	36.959	59.575**
학교급	8.297	2	4.148	6.687**
공격성유형*학교급	9.663	6	1.611	2.596*
오차	1964.714	3167	.620	
합계	2193.964	3178		
공격성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도덕성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격성유형	53.301	3	17.767	30.684**
학교급	.838	2	.419	.724
공격성유형*학교급	10.121	6	1.687	2.913**
오차	1833.813	3167	.579	
합계	1957.671	3178		
공격성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공감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격성유형	50.174	3	16.725	26.979**
학교급	.988	2	.494	.796
공격성유형*학교급	10.287	6	1.714	2.766*
오차	1963.240	3167		
합계	2083.580	3178		
공격성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자기조절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격성유형	86.360	3	28.787	52.228**
학교급	.629	2	.314	.570
공격성유형*학교급	7.289	6	1.215	2.204*
오차	1745.580	3167	.551	
합계	1875.240	3179		
공격성유형과 학교급에 따른 부정정서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공격성유형	105.570	3	35.190	35.345**
학교급	5.243	2	2.621	2.633
공격성유형*학교급	19.850	6	3.308	3.323**
오차	3153.134	3167	.996	
합계	3348.498	3178		

** $p < .01$, * $p < .05$

공감과 관련해서는 공격성 수준별 유형이 공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공격성 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자신과 또래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높은 공격성집단이 공감점수가 가장 낮았다. 반면 중, 고등학생은 자기보고 공격성집단의 공감 점수가 가장 낮았고, 비공격성 집단과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의 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기조절과 관련해서는 공격성 수준별 유형이 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공격성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자신과 또래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높은 공격성집단이 자기조절을 가장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 고등학생은 자기보고 공격성집단도 높은 공격성집단만큼 자기조절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정서와 관련해서는 공격성 수준별 유형이 부정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공격성수준별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자신과 또래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높은 공격성집단이 부정정서 점수가 가장 낮았고, 비공격성 집단의 부정정서 점수가 가장 낮았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비공격성 집단의 부정정서 점수가 또래지명 공격성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4집단으로 구분하여 사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적응수준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 중, 고등학생들의 공격성 수준별 유형 분포를 살펴보면, 또래지명 공격성집단과 높은 공격성 집단 모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보고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확인된 집단의 비율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 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적이라고 지목될만큼 외현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해볼 때(Khanehkeshi & Basavarajappa, 2011; Napoli, 2001; Smokowski, et al., 2016), 자신만의 방식 또는 은밀한 방식으로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비공격성집단이나 또래지명 공격성집단에 비해 대체로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학교적응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Zimmer-Gembeck, & Pronk, 2012)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또래에 의해 공격적이라고 평가되는 것보다 스스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할 때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전반적인 학교적응에도 더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든 학교 급에서 스스로를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가

교육적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방법론적 공통성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 연구에서 학교적응, 긍정심리, 부정심리와 관련해서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해 공격적이라고 평가한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부정정서나 문제행동 등에 더 일관되게 반응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데,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된 또래괴롭힘 수준이 자기보고방식으로 측정된 종속변인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은 공유된 방법의 변량(shared method of variance)의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신유림, 2006).

이러한 가능성과 더불어 자기보고와 또래지명방법의 적절성 여부는 종속변수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가령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학교적응과 관련된 부분은 자기보고방법이 더 적합한 반면, 사회적 평판이나 또래관계에서의 사회적 행동 등은 또래지명방법에 의해 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또래지명과정에서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Clemans(2010)는 청소년의 공격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최근 또래지명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래지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편견 등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고려와 결과해석에서 이러한 점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 점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격성에 대한 자기보고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또래지명에서도 역시 공격성에 대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Clemans, 2010)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이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 나타난 공격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의 결과는 기존 연구결과들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이 연구에서는 또래들은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는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보고 공격성집단의 비율이 다른 선행연구(Österman et al., 1994)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Branson & Cornell, 2009)에서도 괴롭힘 행동에 대한 자기보고와 또래지명방법을 비교한 결과, 자기보고에 비해 또래지명에서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또래관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서 서로 다른 표현방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Matsumoto, et al, 1998; Matsumoto, Yoo, & Fontaine, 2008).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공동체를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나쁜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을 약간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다소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했다면 자신과 타인의 공격행동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준을 사용한 셈이 된다. 비슷한 맥락에서 자신의 사회적 평판이나 인기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다소 겸손한 대답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서구문화권의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 있고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향후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종단연구를 통해 공격성에 대한 또래지명과 자기보고 간의 격차가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학교급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공격행동의 유형을 밝히고 관련 특성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사회적 비교가 더 심해지는 데 중학교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지명을 사용한 연구가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이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격성 유형과 학교급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보고나 또래지명의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 반면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자기보고 공격성 집단이 높은 공격성 집단과 더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는 '보여지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공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심리, 사회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자기보고와 또래지명이라는 보고자를 중심으로 유형화했으나, 공격성은 형태(type)에 따라 신체적, 관계적, 사이버폭력 등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며 더불어 공격성의 목적(purpose)이나 기능(function)에 따라 선제적 공격성이나 반응적 공격성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Prinstein & Cillessen, 2003).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공격성이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사회관계, 학교적응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보고자에 초점을 두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목적이나 기능을 포함하여 공격성을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해 보고 이러한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 적응과 행동과의 관련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Sijtsema, Veenstra, Lindenberg, & Salmivalli, 2009). 둘째, 이 연구에서는 공격성 유형과 심리사회적 특성 사이의 횡단적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추후 이를 더욱 확장해서 종단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Baly, Cornell, & Lovegrove, 2014). 셋째, 선행연구에서는(Graham, Bellmore, & Mize, 2006) 공격적이거나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하는 학생들에 비해 학교적응 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향후 피해경험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적응집단과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좀 더 심층적으로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소연, 전종설(2015).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6(4), 193-208.
- [Kim, S., & Chun, J. (2015).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aggression. *Korean J. of Child Studies*, 36(4), 193-208.]
- 김세원, 김예성(2009).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발달패턴 및 예측요인. **인간발달연구**, 16(2), 87-107.
- [Kim, S. W., & Kim, Y. S. (2009).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 physical aggression and their predicto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6(2), 87-107.]
- 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박민숙, 손석한, 서동향, 김세주, 최낙경, 홍상의(2001). 초등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의 유병률과 이와 관련된 정신병리현상. **신경정신의학**, 40(5), 876-884.
- [Kim, Y. S. et.al. (2001). School bully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0(5), 876-884.]
- 김재철, 최지영(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Kim, J. C., & Choi, J. Y. (2011). The influence of child abuse by parents on child agg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victimization.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1), 19-32.]
- 문명현, 이윤주(2016). 청소년의 우울/불안, 공격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6), 175-200.
- [Moon, M. H., & Lee, Y. J. (2016).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anxiety, agg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ing effects off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175-200.]
- 문유신(2015). **유아의 성, 연령, 도덕성 및 공감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Moon, Y. S. (2015). *The influences of preschool children's sex, age, morality, and empathy on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outh Korea.]]
- 박미향, 김완일(2014). 청소년의 공격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자존감 안정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0), 475-501.
- [Park, M. H., & Kim, W. I. (2014).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stability in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djustment to school life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475-501.]
- 박영란, 이주리(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안정성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2), 61-79.
- [Park, Y. R., & Lee, J. L. (2011). Relationship of stability and level of self-esteem with aggression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7(2), 61-79.]
- 박종효, 문경숙, 최지영, 홍경화, 안해정, 김진구, 최은영(2017). 사회연결망분석에 기초한 클래스넷(ClassNet)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학생 생활지도 및 학급 운영에 관한 교육적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48(3), 107-137.
- [Park, J. H. et.al. (2017). Development of ClassNet, a web-based social network analysis software program,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8(3), 107-137.]
- 박예라, 오인수(2018). 초등학교의 괴롭힘 경험과 주변인행동의 관계: 또래동조성과 학급규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9(1), 1-27.
- [Park, Y. R., & Oh, I. S. (2018). The relation between bullying experiences and bystander's behavioral reactions among elementary students - The moderating effects of peer conformity and perceived class norms.

-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1), 1-27.]
- 손경숙(2001).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도덕적 판단 및 공격성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on, K. S. (2001). *The relationship among Children's Perception of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moral judgment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Ghung-Ang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송지연, 오인수(2015).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방식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의 측정 방법 비교 분석. **상담학연구**, 16(4), 377-394.
- [Song, J. Y., & Oh, I. S. (2015). A comparison analysis of self-report and peer-nomination in the assessment of school violence experienc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4), 377-394.]
- 신나민 (2012). 청소년 또래괴롭힘의 참여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공감 구인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4), 25-45.
- [Shin, N. M. (2012). Empathy and bullying: How are they related in explaining the types of bullying participation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4), 25-45.]
- 신유림(2006).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괴롭힘에서 측정방법에 따른 심리사회적 부적응 차이: 자기보고법과 또래 지명법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4), 141-149.
- [Shin, Y. L. (2006). Cross-informant measures of peer victimization on psychosocial mal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Comparisons between self-reports and peer nomin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4), 141-149.]
- 안지연, 손영은, 남석인(2014).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12), 261-284.
- [An, J. Y., Son, Y. E., & Nam, S. I. (2014).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2), 261-284.]
- 우유라, 노충래(2014).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및 공격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2), 203-227.
- [Woo, Y. R., & Nho, C. R. (2014).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solidarity between emotional and aggressive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6(2), 203-227.]
- 유지혜, 유혜승(2018).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9(1), 89-113.
- [Yu, J. H., & Yoo, H. S. (2018).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9(1), 89-113.]
- 이명신(2003). 괴롭힘행동 결정에 있어 개인 동기와 집단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15, 39-81.
- [Lee, M. S. (2003). Mediating effects of personal motives and group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5, 39-81.]
- 이선미, 유성경(2013). 또래 괴롭힘 피해와 우울, 불안 관계에서 소극/회피적 대처행동과 공격적 대처행동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2), 1209-1226.
- [Lee, S. M., & Yoo, S. K.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depression/anxiety: Meditating effects of passive/evasive behavior and aggressive behavi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4(2), 1209-1226.]
- 이승주, 남재성(2016).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12(3), 87-112.
- [Lee, S. J., & Nam, J. S. (2016). Effects of low self-esteem based on experiences of child abuse on aggressiveness: Targeting juvenile reformatory inmates.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2(3), 87-112.]
- 이훈구(2000). **사회문제와 심리학**. 법문사.
- [Lee, H. G. (2000). *Social problems and psychology*. Gyeonggi-do, Bobmunsa.]

- 이혜정, 위슬아, 김범준(2015). 공격성과 비행에 관한 연구-남녀 차이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4), 675-695.
- [Lee, H. J., Wi, S. A., & Kim, B. J. (2015). A study of aggression and delinquent behavior-Focusing on gender difference and change. *The Korean Journal of Women Psychology*, 20(4), 675-695.]
- 장지윤, 이경순, 장은영(2014). 수형자들의 기질과 아동기 외상경험이 공격성과 충동성에 미치는 효과: 도덕 판단력과 도덕 정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1-20.
- [Chang, J. Y., Lee, K. S., & Jang, E. Y. (2014).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temperament on prisoners' aggression and impulsivity: Mediation role of moral judgement and moral emo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7(3), 1-20.]
- 정여주, 두경희 (2015). 사이버폭력 가해자의 공감능력이 인터넷 댓글쓰기로 나타난 공격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6(1), 31-50.
- [Chung, Y. J., & Du, K. H. (2015). Effects of cyberbully's empathy ability on aggression level writing replies on internet board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6(1), 31-50.]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Jin, H. M., Park, B. S., & Bae, S. W. (2011). The impact of informal labeli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ggression on juvenile delinquency-focusing on path analysi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121-148.]
- 진혜민, 배성우(2012). 청소년비행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Jin, H. M., & Bae, S. W. (2012). A meta-analysis on the variables related with juvenile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93-221.]
- 채진영(2013). 아동의 또래 괴롭힘 피해경험이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 및 교사 학대의 조절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20(2), 71-86.
- [Chae, J. Y. (2013).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abuse by parents and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0(2), 71-86.]
- 최지영, 배리영(2014). 관계적 공격성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2000년~2013년. **인간발달연구**, 21(1), 181-200.
- [Choi, J. Y., & Bae, R. Y. (2014). A review of research on relational aggression in Korea(2000-2013).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21(1), 181-200.]
- 최지영, 허유성(2008). 괴롭힘 상황에서의 참여자 역할 및 관계적 공격행동 지각유형에 따른 도덕판단력과 사회적 상호의존성. **청소년학연구**, 15(6), 171-196.
- [Choi, J. Y., & Heo, Y. S. (2008). Moral judgment and social interdependence according to perception and participant role in bullying situ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5(6), 171-196.]
- 최태산, 김자경(2015). 모의 심리적 통제와 초기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이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8), 363-384.
- [Choi, T. S., & Kim, J. K. (2015).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early adolescent self-efficacy on adolescent externalized and internalized behavi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8), 363-384.]
- 한국교육개발원(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 [KEDI (2007). *Analysis of education for school maladjustment students: High-school focus.*]
- 한세영(2007). 초기청소년의 도덕적 정서와 공격성: 죄책감, 수치심, 감정이입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17-33.
- [Han, S. Y. (2007). Moral emotion and aggression among early adolescence-Focusing on guilt, shame, and empathy.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5(7), 17-33.]
- Baly, M. W., Cornell, D. G., & Lovegrove, P. (2014).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self-and peer reports of bullying victimization across middle school. *Psychology in the Schools*, 51(3), 217-240.

- Branson, C. E., & Cornell, D. G. (2009). A comparison of self and peer reports in the assessment of middle school bullying.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25*(1), 5-27.
- Briggs, D., Doyle, P., Gooch, T., & Kennignton, R. (1998). *Assessing Men Who sexually abuse: A practice Guide*. London: Jessica Kingsley.
- Card, N. A., Hodges, E. V., Little, T. D., & Hawley, P. H. (2005). Gender effects in peer nominations for aggression and social statu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46-155.
- Clemans, K. H. (2010). Explaining the discrepancies between self and peer reports of aggression in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Diamantopoulou, S., Rydell, A., & Henricsson, L. (2008). Can both low and high self-esteem be related to aggression in children? *Social Development, 17*(3), 682-698.
- Ferguson, C. J., Miguel, C. S., Garza, A., & Jerabeck, J. M. (2012). A longitudinal test of video game violence influences on dating and aggression: A 3-year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6*(2), 141-146.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82-299.
- Graham, S., Bellmore, A. D., & Mize, J. (2006). Peer victimization, aggression, and their co-occurrence in middle school: pathways to adjustmen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3), 363-378.
- Hastings, P. D., Zahn-Waxler, C., Robinson, J., Usher, B., & Bridges, D. (2000). The development of concern for others in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5*, 531-546.
- Khanekhesi, A., & Basavarajappa (2011).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with aggression, depression and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in Iran. *Journal on Educational Psychology, 5*(1), 24-31.
- Lewin, A. Y., & Zwany, A. (1976). Peer nominations: A model, literature critique and a paradigm for research. *Personnel Psychology, 29*(3), 423-447.
- Matsumoto, D., Takeuchi, S., Andayani, S., Kouznetsova, N., & Krupp, D. (1998). The contribution of individualism vs. collectivism to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display rule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7-165.
- Matsumoto, D., Yoo, S. H., & Fontaine, J. (2008). Mapping expressive differences around the worl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display rules and individualism versus collectivism.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9*(1), 55-74. doi: 10.1177/0022022107311854
- Mullis, A. K., Mullis, R. L., & Normandin, D. (1992).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comparisons of adolescent self-esteem. *Adolescence, 27*, 51-61.
- Napoli M. (2001) Stress management and reduction of aggression in grade school children. In: Martinez M. (eds) *Prevention and Control of Aggression and the Impact on its Victims*. Springer, Boston, MA
- Orpinas, P., & Frankowski, R. (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Österman, K., Björkqvist, K., Lagerspetz, K.M.J., Kaukiainen, A., Huesmann, L. R., & Fraczek, A. (1994). Peer and self-estimated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8-year-old children from five ethnic groups. *Aggressive Behavior, 20*(6), 411-428.
- Pellegrini, A. D., & Bartini, M. (2000). An empirical comparison of methods of sampling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school setting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360-366.
- Prinstein, M. J. (2007). Assessment of adolescents' preference-and reputation-based peer status using sociometric experts. *Merrill-Palmer Quarterly, 53*, 243-261.
- Prinstein, M. J., & Cillessen, A. H. N. (2003). Forms and functions of adolescent peer aggression associated with high levels of peer status. *Merrill-Palmer Quarterly, 49*, 310-342.
- Rigby, K. (1996). *Bullying in schools and what to do about it*. London: Jessica Kingsley.

- Rodkin, P. C., & Ahn, H. (2009). Social networks derived from affiliations and friendships, multi-informant and self-reports: Stability, concordance, placement of aggressive and unpopular children, and centrality. *Social Development*, 18(3), 556-576.
- Rodkin, P. C., Farmer, T. W., Pearl, R., & Van Acker, R. (2006). They're cool: social status and peer group supports for aggressive boys and girls. *Social Development*, 15(2), 175-204.
- Sijtsema, J. J., Veenstra, R., Lindenberg, S., & Salmivalli, C. (2009). Empirical test of bullies' status goals: Assessing direct goals, aggression and prestige. *Aggressive Behavior*, 35, 57-67. <https://doi.org/10.1002/ab.20282>.
- Smokowski, P. R., Guo, S., Cotter, K. L., Evans, C. B. & Rose, R. A. (2016), Multi level risk factors and developmental assets associated with aggressive behavior in disadvantaged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42, 222-238.
- Snowman, J., & Biehler, R. (2000). *Psychology applied to teaching*.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 Weinhold, B. K. (2000). Bullying and school violence: The tip of the iceberg. *Teacher Education*, 35(3), 28-33.
- Zimmer-Gembeck, M.J., & Pronk, R.E. (2012). Rel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self-and peer-reported relational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38(1). 16-30.

최지영(choi0122@hnu.kr)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사회성 및 도덕성 발달, 협동학습, 학교폭력 등이 주요 연구주제임.

문경숙(moonks64@gmail.com)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문화적 맥락에서의 정체성 발달, 청소년의 또래관계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안해정(hahn2@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청소년의 또래관계,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홍경화(kw.hong@ttgu.ac.kr)

헛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의 이해 및 환경요인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김진구(judestream@gmail.com)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인성 및 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공동체연구소에서 KU연구전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괴롭힘 행동, 친사회적 행동, 또래맥락,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이 주요 연구 주제임.

최은영(caeaya@naver.com)

건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학교참여, 사이버 괴롭힘, 청소년의 또래관계 등이 주요 연구주제임.

박종효(jonghyop@konkuk.ac.kr)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청소년의 또래관계, 용서교육, 학교폭력 등이 주요 연구주제임.

